

주요 내용

■ 연말연시 지출 계획으로 본 가계 소비심리 분석 ■

□ 설문조사 개요

-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기혼자(992명)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관련 지출의 내용과 변화를 분석하여 일반 가계의 소비심리 파악

□ 설문조사 결과

- (연말연시 지출 규모) 연말연시 관련 지출 규모를 1년 전과 비교하여 묻는 질문에서 「계획없음」이나 「1년 전보다 줄일 것」 응답 비중이 69.7%를 차지함
 - 이는 97년 말(89.1%)과 98년 말(90.3%)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준이나, 외환 위기 이전인 96년 말(58.0%)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음
 - (소득 규모별) 소득이 높을수록 「계획 없음」이나 「1년 전보다 줄일 것」이라는 응답 비중의 98년 말 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
- (예상 지출 비용) 지출 계획이 있다고 한 응답자들의 예상 지출비용은 평균 22만 9천원으로 97년 말(17만 5천원)과 98년말(17만 4천원)에 비해 약 31~32% 증가함

□ 결론 및 시사점

- (소비심리 회복 반영) 연말연시 지출로 파악한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는 올해 들어 크게 회복되었으나, IMF 위기 이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
- (경기 회복세에 따라 소비심리 회복세 지속 전망) 외환 위기 해소, 경기 회복세, 향후 소득 불안감 해소 등을 반영된 것으로 향후 경기 회복세에 따라 소비심리 회복세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

연말연시 지출 계획으로 본 가계 소비심리 분석

김 범 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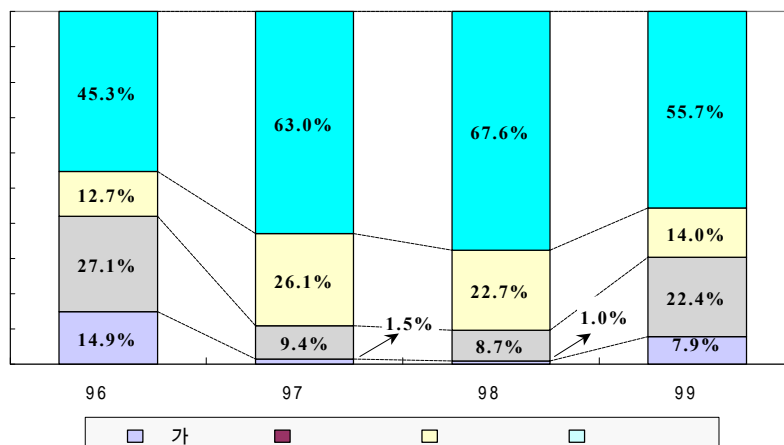
설문조사 개요

조사 시기	99년 12월 14~16일
조사 대상	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기혼자(992명)
조사 목적	일반 국민들의 연말연시 관련 지출의 변화 파악
조사 방법	무작위 추출에 의한 전화 설문

설문조사 결과

- (연말연시 지출 규모)연말연시와 관련된 지출 규모(가족 및 친인척을 위한 선물이나 용돈 등)를 1년 전과 비교하여 묻는 질문에서 「계획없음」이나 「1년 전보다 줄일 것」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69.7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
- 이는 97년말(89.1%)과 98년말(90.3%)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준이나, 외환 위기 이전인 96년말(58.0%)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음

< 1년전 대비 연말연시 지출 비용 변화 >



- (소득 규모별) 월 평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「계획없음」이나 「1년전

보다 줄일것」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98년말에 비해 감소하였으나, 감소 정도는 계층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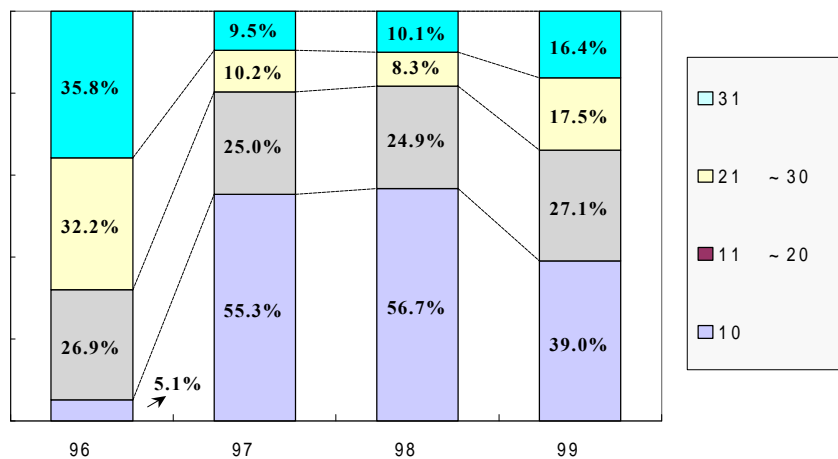
< 월평균 소득별 1년전 대비 연말연시 지출 변화 >

(단위: %)

		증가	비슷	감소		
				감소	계획없음	
98년말	70만원 이하	0.5	1.0	8.6	90.0	98.6
	71만~300만원	1.2	10.4	26.4	61.9	88.3
	301만원 이상	0.0	17.6	29.4	52.9	82.4
99년말	70만원 이하	0.9	7.1	5.4	86.6	92.0
	71만~300만원	7.6	23.2	15.2	54.0	69.2
	301만원 이상	19.5	35.4	14.6	30.5	45.1

- (예상 지출비용) 지출 계획이 있다고 한 응답자들의 예상 지출비용은 평균 22만 9천원으로 97년말(17만 5천원)과 98년말(17만 4천원)에 비해 약 31~32% 증가함
- (예상비용별 응답자 구성비) 「30만원 이상」 응답자의 비중이 16.4%, 「20만원대」 응답자의 비중이 17.5%, 「10만원대」 응답자의 비중이 27.1%로 97~98년말에 비해 증가한 반면 「10만원 이하」 응답자의 비중은 39.0%로 97~98년말에 비해 감소함

< 연말연시 선물 비용 변화 >



-
- (선호하는 선물의 종류) 연말연시 선물로 선호하는 품목으로는 청소년/어린이용이나 성인용에 구분없이 「현금」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(청소년/어린이용) 「현금」이 18.4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그 다음으로는 「장난감」(17.5%), 「책(도서상품권)」(16.6%), 「학용품」(16.8%), 「의류 및 신발」(15.3%) 順으로 나타남
 - (성인용) 「현금」이 38.8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그 다음으로는 「의류 및 신발」(18.2%), 「일반상품권」(15.2%), 「식품류」(9.8%) 順으로 나타남
 - 성인용 선물 품목중 「현금」비중의 경우 98년말(41.2%)에 비해서도 다소 감소하였으나, 96년말(28.3%), 97년말(31.4%)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구체적인 선물보다는 현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

결론 및 시사점

- 연말연시 지출과 관련하여 파악한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여 올해 들어 크게 회복되었으나, IMF 위기 이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이는 외환 유동성 위기 해소, 빠른 경기 회복세, 향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
 - 내년에도 GDP 증가율이 5~6%대에 달하는 경기 호조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러한 소비심리 회복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
(bkkim@hri.co.kr ☎ 724-4016)